



궁·금·함·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사 양 ●●

Q 아버지 농장 일을 도와드리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1. 자돈사에서 가운데 있는 돼지보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쪽에 있는 돼지가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잘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도 때문인 것 같아서 가운데 쪽에 물도 뿌려보았는데도 계속 비실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육성돈방으로 옮긴 돼지가 잘 자라다가 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 있나요?

3. 인터넷에서 돼지에게 약산성 물을 마시게 하면 돼지 면역성이 좋아진다는 걸 봤습니다. 약산성 물을 만드는 약품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이 먹는 음식 같은 걸로 약산성을 만들 수는 없나요?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1. 돈사 형태가 슬러리이거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는 아닌지요? 그렇지 않다면 찬바람을 맞는 돼지가 안 좋을 텐데 오히려 좋다니 돈사 구조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시설 또는 환기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급성 폐렴이거나 요즘은 간혹 돼지단독도 극성일 때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폐사돈을 부검을 해보면 점차 정상돈과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아니면 전문가에게 부검을 의뢰해가며 공부를 해보세요. 최소한 폐조직이 안 좋다는 것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3. 요즘 고급 유기산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Q 다름이 아니라 지금 양돈현장에서 양돈에 대하여 교육 중인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거세에는 링(고무줄)방법과, 무혈거세, 외과적 시술방법이 있는데 대가축의 경우 무혈과 링 방법을 이용하지만 돼지의 경우에는 외과적인 시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에는 외과적인 거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세를 할 때 고회환을 잘라 내는데 정확히 어디 부위를 잘라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몇 일령에 거세를 하는 것이 좋으며 거세의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거세 후 멀쩡한 돼지가 저체온증을 보이면서 쇼크사를 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통 거세

후 강옥도를 뿌리고 페니실린계통의 약과 소염제를 놓아 주는데 이것이 올바른 처치법인지 궁금합니다.

단미를 하는 이유와 단미를 할 때 어느 부위를 자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곳인지와 단미를 할 때 잘못하면 연쇄상 구균등과 같은 여러 병원균들이 침투를 하여 많은 질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꼬리 자르기를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단미의 장·단점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거 세 :

1. 외과적인 거세방법 외에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곧 도입하게 될 면역적 거세(일명 거세 백신) 방법도 있습니다.

고환과 부고환 밑의 정색 사이에 있는 얇은 고환간막(고환과 부고환을 당기면서 바로 아래의 정색 부위)을 자르면 됩니다. 거세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스트레스 예방에 좋습니다. 보통 3일령 철분 주사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세의 장점은 주로 수컷 냄새 제거와 순한 성질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단점이라면 지방 축적이 많고, 스트레스로 인해 증체중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차원에서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말 그대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입니다. 이때는 에피네프린이 효과적입니다만,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안나카타우린 등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3. 거세 후 강옥도는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강옥도는 조직을 불로 태우는 식의 효과입니다. 워낙 비위생적으로 하는 거세이다 보니 소독효과야 좋지만 스트레스는 너무 심한 것입니다. 베타딘 정도의 소독과 항생제 가루 도포가 무난합니다.

*단 미 :

1. 안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꼬리물기 방지와 미관상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4 미추 쯤 했었는데 요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볼 생각으로 더 길게 남겨놓고 자르고 있습니다.

3. 꼬리도 척추의 일부(미추)인데다 신경이 지나므로 오염된 부위로 갖가지 세균들이 감염 가능합니다. 자를 때 반드시 마디를 자르도록 하고, 자른 후 베타딘 등으로 필히 소독하셔야 합니다.

4. 각종 신경증상이나 관절질환 또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위축돈 포함)이 가능 합니다.

Q 저희 농장에 예전부터 살모넬라 발병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들어 갑자기 또 극성이에요. 살모넬라로 인해서 회장염 적리를 보이는 비육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사료섭취를 잘하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과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의 70~90kg 사이에서 발병이 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일단 정확한 진단은 받으셨나요? 살모넬라로 확진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감수성 약제도 통보 받았을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살모넬라는 세포내 기생으로 첨가용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감수성 없는 약제를 사용 시에는 스텝크처럼 자기 방어를 위해 독소를 품어내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1. 몇 가지 항생제를 주사제로 선택해서 직접 효과가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개체별 확인 후 그 제제로 음수투약과 병행하여 꾸준한 치료를 하

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미카신, 세티푸어, 퀴놀린제, 콜리스틴제 등이 효과적임).

2. 정기적인 음수투약과 확실한 음수소독(음수는 2~3일 간 투약 후 1주 이상 휴약을 반복)으로 세균수를 줄여나가고, 급이기통 등이 자동적으로 소독되도록 음수관리를 잘 하는 것이 승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고급 유기산제(글루콘산제 등)나 고급 생균제를 지속적으로 투여 하세요.

4. 슬러리 피트 소독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적리나 회장염은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며 살모넬라 한 가지만 우선 차단하는데 주력하시고 추후 다시 도전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데서 우리의 문제점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Q 최근 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 부담이 커서 사료를 저렴한 것으로 바꿨더니 자돈들이 이유체중도 많이 떨어지고 잘 크질 않습니다. 어떤 사료가 농가에게 좋을까요?

분만사에 모돈이 출산 후 밥을 잘 안 먹고 발목이 굵어서 절룩거립니다. 가끔 이런 증상들이 발견되는데 치료 방법과 대책이 궁금합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1. 어렵고도 당연한 질문 같습니다.

사료는 전문 사료회사에서 제조한 것이나 전문가가 배합설계한 것이 그래도 무난할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직거래, 현금가나 선입금, 각종 서비스를 받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한다든지-임신진단, 백

신용역, 기타 등)이나 공동구매 또는 OEM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모돈에서 관절 이상은 다양합니다.

근육 타박상이나 인대가 늘어난 것 등은 액체파스를 수일동안 지속적으로 뿌려주기만 해도 되지만, 탈구(Dislocation)나 골절 같은 것은 치료가 힘들거나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부종 때문이지요. 일단 골조직 이행농도가 강한 항생제(퀴놀린계나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겐타마이신, 가나마이신 또는 테트라사이클린계)+키모렙신(키모트립신)+영양제 등으로 3~4일간 직접 주사 후 예후 판단하여 도태 또는 재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3개월령 돼지 한마리가 아침에 사료 잘 먹고 오후에 죽었습니다. 원인이 궁금하여 배를 갈라보니 배에 물이 가득 차있었습니다. 원인과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아마 심한 복막염에 의한 복수증인데, 다발성 장막염이라고도 하며 보통 다른 질병(예: PRRS나 PCV2 또는 내부 기생충 감염 등)이 초기 감염된 후 2차적으로 글래서 증이나 마이코플라스마증이 감염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어쨌든 주증상은 글래서증으로 추정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다발하며 여름철 개방이 늘어나면 약간 줄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츰 발생일령이 어린 일령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그러다보면 폐사율이 의외로 높은 질병입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농장 상황에 맞게 점검해 보시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동**